



GCI Korea 뉴스매거진

더스토리북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요즘, 이전과는 극명하게 달라진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모색이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마치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데, 에스겔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새 영과 새 마음”(겔 36:26)이라고 했다. 즉 새로운 마음이 없이는 새로운 일상도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닌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것이다. 이를 위해 에스라와 같은 학자들은 말씀을 통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영적재건운동을 펼쳤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시편」이다.

COVER STORY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위한 시편 신학



석진성 목사
GCI Korea 멘토
우면창신교회 담당

시편의 서론과 결론

우리는 보통 시편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작위로 모아 만든 시선집 정도로 생각하는 데, 사실 시편은 신학적인 의도와 목적 아래 매우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만들어진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150편의 시들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시편은 총 다섯 권의 책(1권: 1-41편, 2권: 42-72편, 3권: 73-89편, 4권: 90-106편, 5권: 107-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1-2편은 각각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통치”라는 두 개의 핵심 주제를 소개하며 시편 전체의 문을 열고 있는데, 그 중 ‘토라시’로 분류되는 1편은 1권과 5권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두 토라시인 19편과 119편의 서론 역할을 함으로써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 ‘제왕시’로 분류되는 2편 또한 2권과 3권의 마지막 시편인 72편과 89편이 제왕시라는 점에서 ‘왕권’의 주제를 드러내는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편 1-2편이 시편의 서론이라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146-150편은 시편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청으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론과 결론만 보아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큰 주제가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편의 본론

이러한 흐름은 본론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1-3권은 탄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4-5권에는 찬양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시편 전체의 흐름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흘러간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통과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의 삶이 끝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1-3권은 탄식과 맞물려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지를 한 사람,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는 데, 특별히 3권의 마지막 시편인 89편이 다윗 언약의 파기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다윗 계열의 왕들을 통해 세우길 원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4-5권은 그 실패한 인간 왕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4권은 ‘모세의 기도’인 90편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모세의 시대를 의도적으로 떠올린다. 비록 인간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는 구절이 반복되는, “여호와 말라크 시편”(93-99편)에서 절정을 이룬다. 5권에서는 율법의 탁월성을 노래하는 ‘토라시’인 119편을 중심으로 “왕권”의 주제를 다루는 118편과 120편을 앞뒤로 배치함으로써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율법”과 “왕”의 주제를 마지막까지 이어가고 있다. 특별히 144편에서 다윗은 “사람은 헛것이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일 뿐”(4절)이라 고백하며 왕으로 세움 받은 자신의 인생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다. 그리고 마침내 14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팬데믹을 거쳐 엔데믹 시대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꿈쩍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 마음이 없이는 새로운 일상도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영적재건운동이 각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이달의 GCI 알림

여름학기, "통합"

- 여름학기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름학기의 주제는 "통합"**입니다. 지난 학기 동안 학습하신 내용을 **최종 프로젝트로 통합하는 학기**입니다. 여름학기 플랫폼 가이드를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학기 **대면공동학습은 ZOOM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면공동학습에서는 여름학기 동안 작성하실 **최종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그리고 격려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확보 및 참여 필수!!!**



DMin 신청 준비

- GCI 프로그램 이수 후 DMin으로 편입학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지원서/서류들을 6월 30일까지 제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온라인 지원서**
받으신 지원서 링크 클릭 후 작성 및 제출
- 2 성적 증명서**
MDiv 성적 증명서(MDiv 졸업이 아닐 경우 최종 성적 증명서)를 출신학교에서 고든콘웰 입학 담당자에게로 직접 제출
- 3 DMin 지원 지지서(Letter of Endorsement)**
섬기시는 교회가 지원자의 DMin 지원을 지지한다는 편지를 작성 후 서명 혹은 직인날인 후 고든콘웰 입학담당자에게로 직접 제출

1인 1초청 캠페인

- 2023년도 GCI 신입생 모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학생 여러분께서 **또 다른 한 분을 지원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1인 1초청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캠페인 참여자에게 드리는 혜택

- DMin 편입학자가 신입생 1인을 GCI에 초청할 경우 편입학자와 신입생 모두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드립니다!